

지역 소식통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계
김제 세정과 '시티투어'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김제시 생활인구 증대방안 시책으로 발굴한 '김제 시티투어-지방자치인재개발원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추진한 이 프로그램은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원 내에 직접 포스터 부착 등 홍보를 통해 김제의 주요 관광지과 문화자원을 즐길 수 있는 김제시 시티투어 참가자를 신청받아 연수생들에게 우리 시의 매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난 2일 처음으로 실시한 시티투어는 세정사에서 주도해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김제시민증 및 전북사랑도민증 발급을 적극 홍보하고 생활인구로서 김제시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화 혜택을 안내했다.

또한 시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관광지 홍보물 배포 및 지역 특산물 소개를 통해 지역 관광 홍보에도 힘썼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광활면 주민자치위
무주 일원 선진지 견학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6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준수) 위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 무주군 일원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주민자치위원들은 무주머루와 인동굴을 방문해 와인 족족체험 및 와인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친환경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현장을 견학하며 광활면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 특색사업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민 삶의 질 높인다

군, 문화·관광·복지 기능 통합... 문화관광복지국 신설

완주군이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관광·복지 기능을 한층 강화한 '문화관광복지국'을 신설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하며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분력 나서고 있다.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역사과, 관광축제과, 체육공원과,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 등 5개 과로 구성돼,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부서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군민 체감형 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문화역사과는 지역의 정체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시설 운영, 지역예술 활성화, 문화도시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885억원을 확보했으며, '달빛길 일하고 성장하는 문화융합 선도산단 1번지'를 비전으로 청년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문화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근로자 대상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운영 등을 통해 완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관광축제과는 대표 축제와 지역 자원을 연계한 권역별 관광 콘텐츠를 확산하며, 머무는 관광지 완주를 조성하고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28일까지 고산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열리는 '제13회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는 '본능을 깨워라! 와일드한 액션, 거침없는 미식여행'을 주제로 대형 로컬푸드 이벤트 '완주9품'을 비롯해 다양한 이색 체험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외에도 △상관자수지 돌레길 및 힐링공원 조성 △대아·동상지구 관광개발사업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운영 등 완주형 관광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완주군의 매력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있다.

체육공원과는 연령, 성별,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일상 속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현대화는 물론, 접근성 개선을 통해 군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으며, 전국 근대5종 대회 등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스포츠타운' 조성 등 기반을 마련해 세계 수준의 스포츠 행사 개최가 가능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 군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보훈대상자 및 유공자 예우를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해 세대 간 역사 의식을 공유하고, 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세대 간 격차를 줄이고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경로장애인과는 급속한 고령화와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해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돌봄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00세 시대에 대비한 건강한 노후 지원, 장애 유형과 장애유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내 차별 없는 복지환경 조성을 목표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정근 문화관광복지국장은 "완주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화·관광·복지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난 4일 김제시내 한 양식장을 방문한 김희옥 김제 부시장(가운데) 양식장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계속되는 폭염 속 양식장 고수온 피해 예방

김희옥 김제부시장, 현장점검 나서... 애로 청취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식장의 고수온에 의한 피해 예방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김희옥 부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폭염 관련 보조사업 지원 대상어가 중 취약어가들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상황 및 양식생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어가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 노출돼 있는 양어장은 사육수의 온도가 33℃가 넘을 경우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사육밀도와 사료량 조절, 액화산소 공급, 차광막 시설을 하거나 지하수 공

급을 통한 사육수 온도 저하를 통해 효과적인 폭염 예방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시는 폭염으로 인한 양식생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활한 양식시설물 운영을 위한 정전통보기, CCTV, 수질측정기와 수차 및 지하수개발을 지원하는 등 피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 부시장은 "어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폭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피해방지를 위해 소외되는 어가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어르신 건강 지키다

완주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폭염 피해 예방 총력

취약 노인 2520여명 방문 상담, 대응 물품 배부

완주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완주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 노인 2,52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주군 5개 권역(1권역 삼례읍, 2권역 용진읍·봉동읍, 3권역 상관면·소양면·동상면, 4권역 이서면·구이면, 5권역 고산면·비봉면·운주면·화산면·경천면)에서 전담 사회복지사 11명과 생활관리사 168명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취약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폭염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폭염 대응 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폭염 대비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폭염 수당 지급 및 근무시간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또한, 군은 안부 확인 전화 및 방문 상담과 함께, 선풍기·쿨도시·부채·여름 이불 등 폭염 대응 물품 1,340세트를 어르신들에게 전달해 체감온도 완화에 힘쓰고 있다.

경로당 508개소와 5개 수형기관(완주지역자활센터, 용진노인복지센터, 예은노인복지센터, 구이노인복지센터, 완주노인복지센터)에는 폭염 예방 홍보물을 배부해 주민 인식을 높였으며, 현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종사자들에게는 손 선풍기와 모자를 제공할 계획이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14일까지 제안 사업 공모키로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김제시민,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5일 김제시민 11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개념과 제안서 작성 방법을 학습하고, 성공적인 우수사례를 안내해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어 6일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심화과정과 제안 사업 심의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시는 14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올 상반기 '명인' 경찰관 선발

김제경찰서, 표창 수여식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지난 5일 '2025 상반기 김제경찰서 명인 선발식'을 개최하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헌신을 보여준 경찰관 3명을 '명인'으로 선발해 표창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명인'은 김제경찰서 내에서 탁월한 업무 역량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동료들의 귀감이 되는 경찰관을 의미하며 올해 분야별로 6명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명인 3명(경감 박정인, 경위 한덕진, 행정관 김초이)은 경찰서 1층 '공감포'에 이름이 새겨진 명인패가 부착되어 전직원이 함께 존경과 자긍심을 나누는 상징이 되었다.

명인으로 선정된 박정인 경감(지역경찰 부문)은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치안활동과 긍정적인 자구대입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한덕진 경위(수사 부문)는 수사 분야에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로 탁월한 전문성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처리를 했다. 또한 김초이 행정관(행정발전 부문)은 구내식당 전자식권 도입 등 복지환경 개선에 기여한 유공으로 명예의 자리에 올랐다.

이날 행사는 명인 선발자에 대한 상장 수여와 명인패 증정, 현판식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직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조직 내 전문성과 성취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명인으로 선발된 한 경찰관은 "묵묵히 시민을 위해 일한 것이 명인선발로 돌아올 줄은 몰랐다"며, "앞으로도 김제의 안전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이야기했다.

박승준 서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는 명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들의 정신이 조직 내 긍정적인 파급력을 불러올 수 있도록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